

지역 소식통

고창군,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지원...19일까지 신청

고창군이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오는 4월까지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지원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파쇄대상은 과수 전정가지와 복분자, 고추, 깨 등의 영농부산물로 지원단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 파쇄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과수전목, 고춧대, 깨대 등의 부산물을 잘 말려 파쇄 후 토양과 함께 로터리(경운)하거나 퇴비로 활용하여 토양비옥도를 높인다.

특히, 산림 연결지 100m 이내 필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는 파쇄작업 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6명 채용과 동력파쇄기 2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이다.

현재 고창군은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4개소에서 파쇄기 총 2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마을단위 공동파쇄작업시는 무료로 임대 및 배송도 해주고 있다. 영농부산물 파쇄 희망자는 1월 19일까지 농업기술센터(농기계지원팀) 및 읍면(산림경제팀)에 신청하면 된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전지훈련단 유치

고창군이 동계(1~2월) 전지훈련단을 유치해 관광 비수기 지역경제 비동맥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5일 고창군에 따르면 스포츠타운일원에서 대전 유천초등학교 초등부 야구부를 시작으로 초등, 고등 야구부 6개팀, 태권도 10개팀, 세팍타크로 1팀 350여명이 고창군에서 전지훈련을 시작한다. 고창군은 전지훈련 기간동안 선수들에게 체육시설 무료 이용과 간식, 물, 음료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

선수들이 고창에서 머물며 최상의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방문한 선수들이 고창군의 우수한 체육시설에서 부상 없이 훈련하며, 좋은 훈련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시민안전보험보장 확대

올해 일반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추가 보장

정읍시가 더 안전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한다.

시는 올해 지난해 예산보다 2.3배 늘어난 7000만원의 시민안전보험 예산을 투입해 총 14개 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강도 등으로 한정돼 있던 상해사망·후유장해 범위를 확대해 불발이 사고, 압사, 추락사 등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회재난 사망, 급성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해,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65세 이상) 항목이 추가 됐다.

시민안전보험은 2020년부터 5년째 가입해오고 있다. 정읍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전입자를 포함해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지역, 타 보험과 관계없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의 사망은 보장하지 않는다.

시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SNS 홍보, 현수막, 전단지·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이화수 시장은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늘려 보험을 가입했지만 가장 바라는 것은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며 "재난과 안전사고 없는 정읍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누적매출 80억원 달성

작년도 직매장·이커머스 43억원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2021년 6월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한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누적매출 80억원, 누적방문객 24만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한해동안 로컬푸드 직매장과 이커머스 판매를 통해 43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전년도 대비 100% 매출 신장을 달성했다.

이는 부안형 푸드플랜이 400여 생산자와 5000여명의 로컬푸드 회원에게 소득을 창출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군민의 안전먹거리 권리강화라는 공적가치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가며 효율 높은 투자효과를 달성해나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이며, 로컬푸드가 주 소비자인 군민에게 높은 신뢰도를 쌓아가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에 부안군은 2024년도를 부안형 푸드플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원년으로 삼고 중점 추진과제를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부안 푸드엔레포츠텐터가 본격 공사에 들어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내부.

<사진=부안군청 제공>

감에 2025년 7월에 개장될 수 있도록 공정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2024년 상반기에는 안심농산물 공유유통지원센터 및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준공을 통해 관내 농산물의 학교급식 납품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내 농산물로 생산된 가공식품의 다양화로 농가소득 증대 및 먹거리 다양화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높이고자 한다.

아울러 2024년 3월(예정)부터 잔류농약으로부터 안전성을 제공하는 자주인증제를 시행하여 안심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주력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중위소득 50%이하 취약계층에게 관내 농식품을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먹거리 권리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올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 2월 2일까지

부안군은 2024년에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조속히 돌입한다.

농어촌 빈집철거지원사업과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빈집활용 이주자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당 빈집 소재지 읍·면에서 1월 8일부터 2월 2일까지 신청을 받고, 2월 중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어촌 빈집철거지원사업은 1

년 이상 사용·거주하지 않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규모와 지붕재료에 따라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일반지방은 250만원, 슬레이트지붕은 350만원이다. 주거용 72동, 비주거용 18동 지원 계획이며, 부안군청 환경과의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청년, 65세 이상 노인, 문화예술 지역활동가

등에게 4년간 무상임대 조건인 경우 빈집 소유자에게 리모델링 비용 최대 2천5백만원(자부담 별도 5%)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동 지원할 계획이다. 빈집활용 이주자 지원 사업은 빈집을 수리 또는 철거 후 신속할 경우 빈집 소유자에게 리모델링 비용 최대 3천만원(자부담 별도 10%)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최소 2년 동안 부안군에 주소를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 된다. 올해에는 10동으로 확대 지원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고향사랑기부금 6억 초과

고향사랑추진협 모금 활성화 앞장... 6억 5000만원 모금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목표액 5억원을 넘어선 6억 5000만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부안군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난해 1월 255명의 기부금 3885만원으로 기부를 시작해 3월에 818명 1억 2400만원으로 고점을 찍었다.

이후 4~10월에 월평균 167명 기부하였으며 3억 600만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추후추진협은 11월 2438명 3억7200만원으로 상승세를 탔고 12월 한 달 동안 1945명 2억7734만원이 모였다.

군은 목표액 달성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전담부서를 재무과에서 자치행정담당관으로 업무를 이관해 고향사랑협력팀으로 명칭 변경과 함께 인력을 보강하고 전략적 홍보와 함께 답례품 추가 발굴, 타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했다. 답례품은 기존 40종으로 시작하였으나 지난해 7월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 30종을 확대해 현재 관광·서비스, 농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총 70종을 공급 중이다.

또 전국 최초 민간주도 부안군 고향사랑추진협회를 구성하여 부안군 새마을운동본부 권명식 회장을 비롯해 31명의 부안군 사회단체장이 팔을 걷어붙이며 고향사랑 홍보에 나섰던 것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협의회는 '1군민 잃어버린 2가족 찾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새마을지도회 회원 1000여명이 각 2인 유치에 성공했으며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를 비롯해 부안군여성단체협의회, 부안군체육회, 애향운동본부, 재향군인회, 전국이동연합회 부안군지부, 부안군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부안군안보단체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부안군지회, 부안밀알회, 부안서해로타리클럽, 부안해당화로타리클럽 등 많은 사회단체가 동참했다.

타 기관과의 협력도 기부금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군은 지난해 상반기에 우호·친선도시인 인천 계양구, 서울 중구, 울산 중구, 포항시, 부산 수영구 등과 상호기부를 추진하며 1500만원의 기부금을 주고받았다.

또 출향인 단체인 재경부안향우회·부안향우회·재인천향우회·부안군민회·재경위도향우회·재부산 향우회·변산향우회 등 향우들의 기부기부를 이끌어 기부 목표액 달성의 급물살을 탄 것이다.권익현 군수는 "출향인과 부안이 생활권이 타 지역 거주 기부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라며 "행복한 부안을 만들고 더 나아가 안전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기부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 면접 정장 무료대여 사업 실시

18~45세 이하 청년 2박 3일간

정읍시가 지역 청년들의 취업 준비에 힘을 보탠다.

시는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면접 무료 정장 대여사업'을 8일부터 운영한다.

정장 대여는 정읍에 주소를 둔 청년(18~45세) 면접이 예정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여 품목은 남녀 정장과 셔츠, 블라우스, 넥타이, 벨트, 구두 등 면접에 필요한 의류 일체다.

대여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1회 최대 2박 3일간 이용할 수 있다. 정장 대여 시 전문가의 코드 조인과 간단한 수선도 받을 수 있다.

대여를 원하는 청년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이메일을 통해서 하면 된다. 신청 후 확인 문자가 전송되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여업체인 전주 완산구 '센티도'를 방문하면 된다. 정장 대여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



감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일자리정책과(063-539-8112)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욱 일자리정책과장은 "면접 정장 무료 대여를 통해 청년들이 면접 옷차림 준비에 대한 부담 없이 취업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올해도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말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대여업체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정장 보유 수와 전문성을 평가해 '센티도'를 운영업체로 선정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